

아동보육사찰 현황파악·법률적용 등

관리 틀 만들자

“제2의 수경사 없어야” 여론 ... 조계종·선학원 ‘사과’

서울 수경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교계 미신고 아동보육사찰에 대한 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불교계에는 미신고시설의 형태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시설 수는 물론 보호 아동의 실태 등 현황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수경사처럼 아동이 처한 상황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이들이 학대받는 곳이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대한간호협회가 6월 30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틀 크게 확대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올 12월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법률’을 시행하는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동보육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법’은 실종아동을 ‘악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으로 보호자에서 떨어진 14세 미만 아동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실종아동 신고 의무화 ▲경찰관 등 관계시설 출입, 조사권 ▲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수경사의 경우 처럼 한 단위사찰에서 아무런 신고 없이 미아나 버려진 아이들을 맡아 키우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 그런 만큼 아동보호시설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교계 내의 자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보육사찰 현황 분석과 운영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사찰에서 보육중인 아동 실태파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수경사.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분말사 주지 연수 교육과 산하사찰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바뀐 법률안에 의거해 철저히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순수하게’ 좋은 행위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스님들 스스로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

하기 보다는 아동복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복지 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전임연구원은 “이번 수경사 사건은 승가라는 인적관리 체계와 사찰이라는 조직관리 체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교구본사, 말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구본사에서 사찰 관리를 강화해 단위 사찰이 아니라 종단이 시설 보호 대상자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교구본 권위를 통해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 중 상당부분은 사찰이 속해있는 교구본사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계종은 6월 28일 수경사 문제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조계종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종헌·종법에 의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번 수경사 사태를 교훈삼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풍을 진작함과 더불어 무연고아동 보육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경사 등 록돼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도 6월 30일 사과문을 통해 “정법과 중생을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하고 사회적으로 쏟아진 모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경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사찰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진 기자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에 지부 개설

本社 연수원에 사무소, 법련·봉은사서 만다라展·규토 예불의식 첫 시연

민간 교류 차원 ‘풀뿌리운동’ 공동전개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초폐 팔조 체링(사진) 동북아 사무소 대표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6월 30일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사무실을 종로구 청운동 소재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현대불교신문사가 금년 초부터 준비해온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에서 총괄하던 한국-티베트 행사, 교류 등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 운동’을 통해 출

판, 학술, 의학, 예술분야 전반에 있어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지부 개소와 한-티 교류를 기념해 첫 공식 문화행사도 열린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래 만다라(Sand Mandala) 전시와 ‘규토사원(Cyuto) 전통 예불의식’ 시연회를 갖는다. 특히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사원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전통 예불은 국내에서 처음 시연된다.

이밖에도 한-티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차원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대원사 티베트박물관 현장 스님의 특별법문, 연꽃화가 희운 스님의 그림전, 티베트 관련 슬라이드 강

의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체링 대표는 “티베트를 알리는 공식적인 소통로가 한국에도 마련된 셈”이라

며 “무엇보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티베트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동국대 일산병원 6월 29일 진료 개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 6월 29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진료개시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진료개시식은 이사장 현해 스님을 비롯해 재단 이사, 동국대의료원 관계자, 고양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 개원을 축하했다. 현해 스님은 이날 “일산불교병원이 중생구원과 불법실현의 장이 되고, 직원 모

두가 대자비를 실현하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식사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 연구 교육분야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일산불교병원은 수도권 북부 최대병원으로 양·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첨단 디지털 병원이다. 개원법회는 9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031)961-7000

관련기사 9·14면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혹 달라진 여시아문, 아직도 안가보셨어요?!

www.yosiamun.com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누구?

군불교위, 일면·자광 스님 천거

군 포교 사령법인 군종특별교구 초대 교구장 후보에 일면 스님과 자광 스님이 각각 천거됐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 스님)는 6월 30일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상임운영위 회의를 열고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과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을 추천했다.

군불교위원회는 공이여 후보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스님들에게 알리고 스님들이 동의하면 최종후보로써 조계종 총무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조계종 총무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최종 임명하면 군종특별교구장 임명은 마무리 된다.

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인 일면 스님은 교육원장을 역임하고 환경단체인 녹색미래 공동대표를 맡는 등 불교계 인팍으로 폭넓게 활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광 스님은 군종감 출신으로 오랜 군 포교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군 승들을 지도 관리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동화로 신청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문의 02)2004-8211~2

‘할’

방승궁에서 3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면산만 ...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더니 3사람의 벽이 일시에 와르르 ...

그림·조태호

재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최재의 신간 소설가 황석영 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잊혀진 가람 탐험

글·장지현, 사진·고영배 | 4·6배판 변형 | 300쪽 | 가격·23,000원

온라인·통신판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연락처 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Fax:02)737-0696

여시아문